

# 실천할 수 있는 기도

7과 2026년 5월 16일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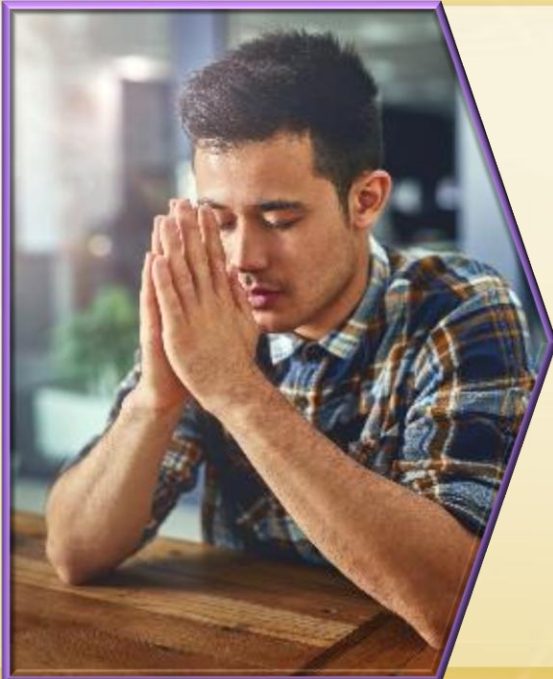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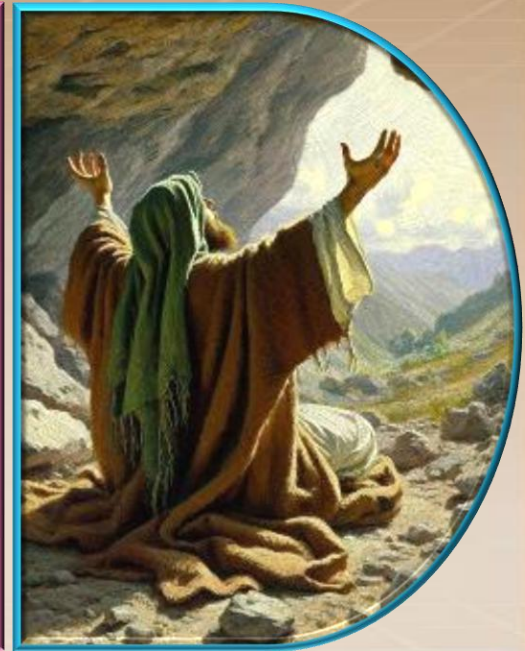
(시 62:8)



바울은 우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항상 기도하라”(엡 6:18)고 당부했습니다.

엘리야와 한나가 드린 기도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움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혼자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할까요?



환란 중에 기도함:



엘리야: 환란을 맞아 기도함



한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기도의 본보기:



예수님: 기도의 내용



다니엘: 기도의 구조



기도에 대한 네가지 질문들



# 환란 중에 기도함

# 엘리야: 환란을 맞아 기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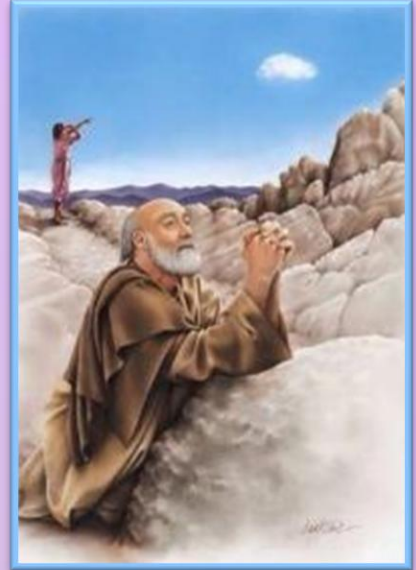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왕상 19:10)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왕상 18:36-38).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일곱번을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구름 하나를 보내셨고, 그 구름은 강력한 폭풍으로 변했습니다(왕상 18:42-45).



그가 지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대신 천사를 보내셔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왕상 19:4-8).

동굴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숨어 있던 엘리야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왕상 19:9-18).

그의 첫 기도는 기적적으로 즉각 응답되었습니다. 두번째 기도는 엘리야가 일곱번이나 간구한 후에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세번째 기도에도 40일이 지나서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춰, 언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 한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삼상 1:27)

여기서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9개월간 기쁨의 임신기간 후에 말입니다 (삼상 1:9-20).



하지만 1장 전체를 읽어보면 한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을 알게됩니다 (삼상 1:1-8).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고, 브닌나는 이미 여러명의 자녀들을 낳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으신 한나를 매년 괴롭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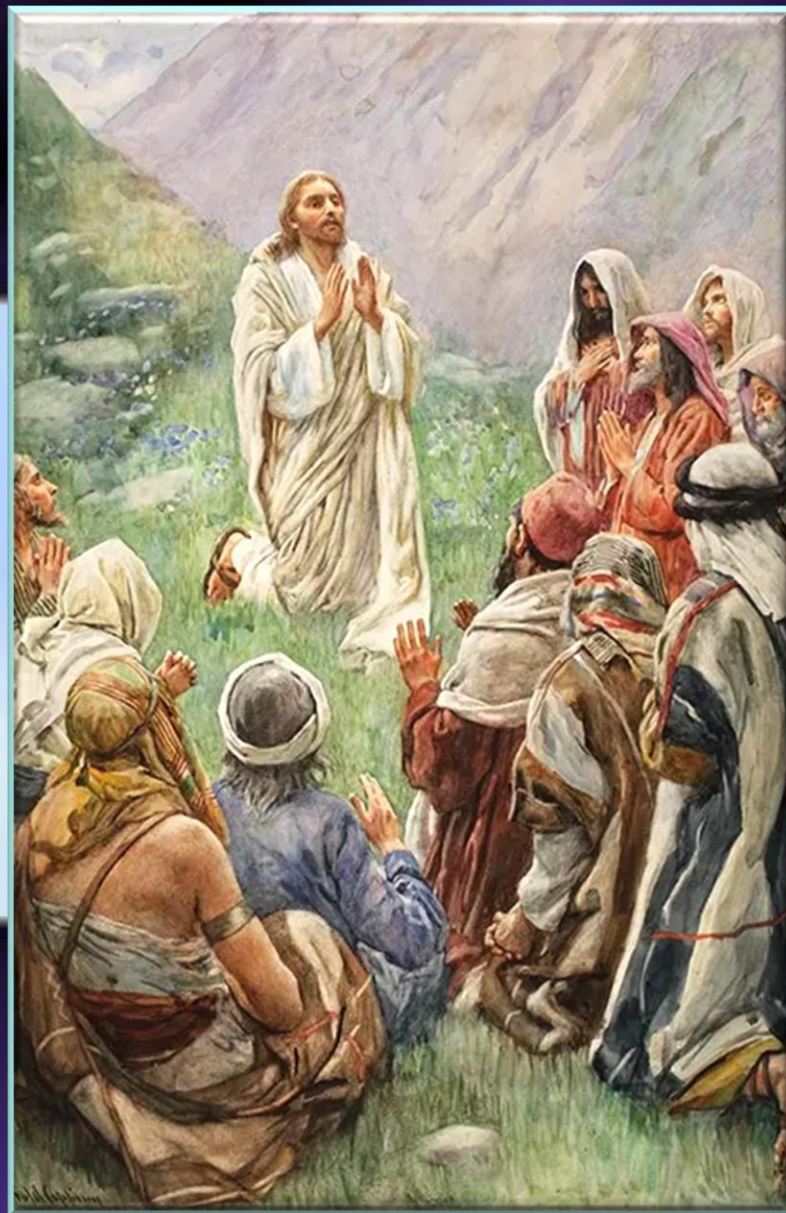
도대체 한나는 몇 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나의 이기심(약 4:3), 마음에 품은 죄(시 66:18), 믿음의 부족(약 1:6)이거나, 아니면 아직 적절한 때가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모든 상황들까지 알고 계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렘 29:11).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그분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시는 때에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요일 5:14-15).



# 기도의 예



# 예수님: 기도의 내용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 6:9)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칭찬 받기 위해 길고 거창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 6:5-8).

기도는 진실하고 간결하며, 일상적인 쉬운 말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간결하면서도 굳어지지 없이 바로 핵심, 즉 내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장소에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기도가 아닌,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줄 생명의 음식을 달라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엘렌 화잇. 『우리의 높은 부르심』, 5월 4일)





# 예수님: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말씀하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면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경외와 존경심을 갖추게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바라봅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과 이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나의 몸과 영의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하셨으므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이 세상에 편만한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피난처를 위해 기도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인이시므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다니엘: 기도의 구조

“그래서 나는 굵은 삼베 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금식하며 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단 9:3)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의 네가지 근본적인 구조들을 잘 보여줍니다.

찬양  
(단. 9:4)

간구  
(단. 9:16-19)

자백과 용서 구함  
(단. 9: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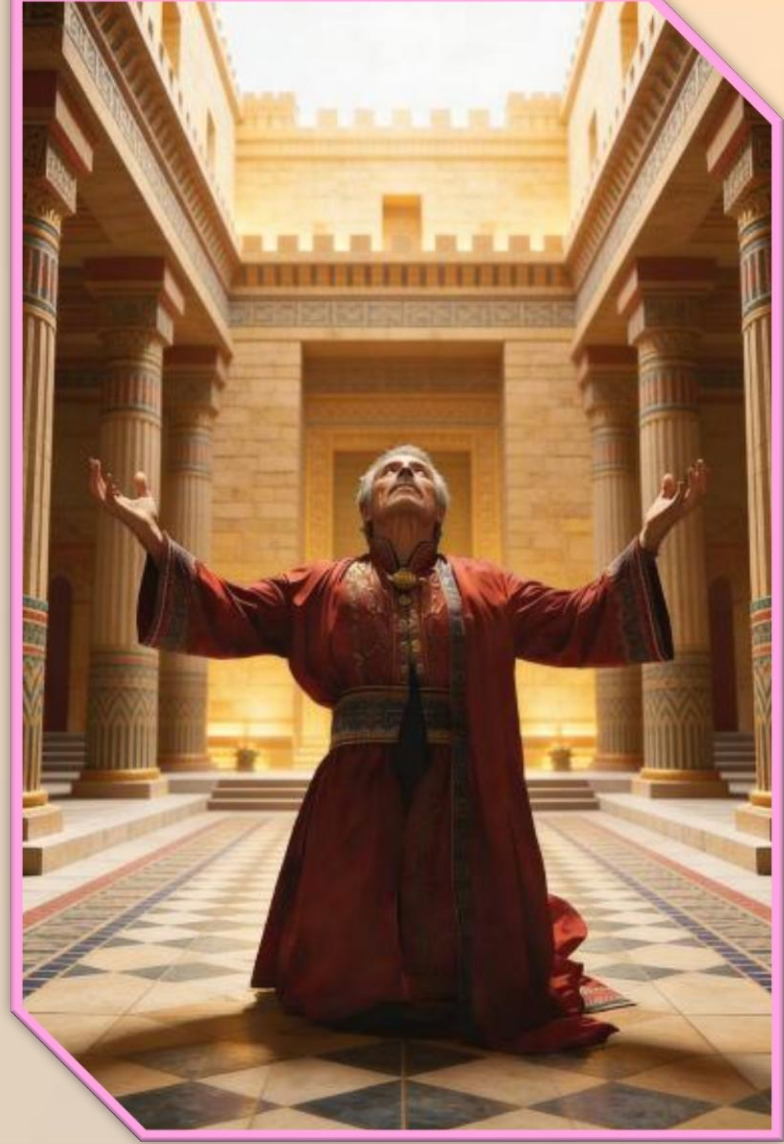
감사드림  
(빌. 4:6)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양식은 우리의 개인 기도와 대중 앞에서 드리는 기도 모두에 적용됩니다. 물론, ‘고백과 용서’에 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그의 기도양식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주며, 기도가 하늘 선물들을 퍼 담는 장 바구니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 기도에 대한 네가지 질문들

##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하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며,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롬 8:26).



## 나의 현재 상황이 관찮은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



죄 짓지 않은 천사들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에게 기도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 누구와 기도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1. 혼자 드리는 은밀한 기도야말로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지는 시간입니다.
2. 가족이나 작은 모임에서.
3. 교회에서.



##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나?



가장 분명하고 안전한 방법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거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경연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잇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 5월 25일)

“기도에는 내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한 절실함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금방 응답 받지 못한다고 해서 지쳐버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하늘 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하늘 나라를 빼앗는다” (마 11:12). 여기서 ‘침략’이란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천사와 서로 엉켜서 씨름할 때 보여주었던 거룩한 간절함을 말합니다. 억지로 걱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리려 애쓰지 말고, 차분하고 끈기 있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의 간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고, 지은 죄를 자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